

중·러, 경제·군사협력 강화 미국, 국제관계 '예의주시'

합동군사훈련·무기개발 등 푸틴-시진핑, 6년간 30회 회동 바이든, 지나친 확대해석 안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경제적, 군사적 협력 강화에 나서자 미국이 국제적 관계에 가져올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경제협력과 공동 군사훈련, 무기개발 등의 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군대는 작년 여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이들은 전투기와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워낙 정보 관리에 철저해 어느 정도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지 외부에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서방의 당국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그들이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도 두 나라가 자국에 대한 공동 위협이 될 가능성에 오랫동안 회의적이었지만, 최근엔 일각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60년 이래 가장 가까운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CNA의 러시아 군

사 전문가인 마이클 코프만은 “그들은 원래 별개의 위협 요소다. 하지만 이전 상호 협력 관계로 인해 서로 연관돼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나친 확대해석을 하지는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4,000km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으로 완전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미국이 두 나라의 영향력을 억누르려는 여러 조치를 내놓으면서 경쟁 관계였던 양국이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정보를 모여 결속하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강화한 것은 2014년부터다. 그해 미국과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수십년간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동안 러시아는 중국을 위한 주요 무기 조달국으로서 역할을 했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방어 시스템을 수입하면서 양국 정상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됐다. 1년 뒤엔 중국이 러시아에서 Su-35 제트기를 들여와 미국 전투함에 대한 공격력을 높였다.

2019년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중국의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년 뒤엔 러시아

공영 언론이 양국이 특급 기밀하에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컴퓨터 칩 개발은 러시아에 서방의 제재로 인해 끊긴 군사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줬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설로 미국과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푸틴은 제재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파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중국도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수사와 오키나와 동맹 결성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군사적 측면만 아니라 무역과 기술교류, 에너지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년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30차례 이상 만났다.

작년 1-9월 양국의 교역량은 1,000억 달러를 넘겼다. 3개 분기 만에 전년의 교역량을 전부 채운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미국은 양측을 이간질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를 조바심 내며 바라보고 있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말한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이해와 상충한다. 아울러 러시아는 중국과 오랜 견원관계인 인도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인도 역시 S-400 시스템을 수입했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국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아공 국회 건물 화재로 완전히 소실

경찰, 50대 용의자 체포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2일(현지시간)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 국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남아공 국회 구관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로 확산했고 의정활동이 이

뤄지는 인근의 신관까지 번졌다.

선디 밤보 경찰청 대변인은 “국회 건물 내부에서 남성을 체포했으며 4일에 법정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트사 더릴 공공사업·인프라 장관도 이날 취재진에게 “화재와 관련해 50대 남성이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더릴 장관은 “이번 국가 시설에 대한 공격은 경찰 특별 수사대 ‘호크스(Hawks)’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남성은 불이 나기 전인 이날 새

벽 국회 건물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국회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고 더릴 장관은 전했다.

더릴 장관은 이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누군가 국회 내부 수도 밸브를 잠근 것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현지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에는 7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오페라극장 첫 여성 음악감독 탄생

우크라이나 출신 리니브

259년 역사의 이탈리아 시립 오페라극장에 사상 최초로 여성 음악감독이 취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볼로냐 시립극장(Teatro Comunale di Bologna) 음악감독으로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지휘자인 옥사나 리니브(43)가 오는 22일 취임한다.

1763년 5월 문을 연 이 극장에 여성 음악감독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니브는 3년 임기로 지휘봉을 잡는다.

리니브는 극장 측의 제안을 받고 “매우 영광이며, 역사적 전환점의 일부가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리니브는 이미 유럽 무대에서 금녀의 벽을 깨은 여종의 주인공이다.

그는 임기 내 목표로 젊은층에서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더 끌어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야당 텃밭에 세운 멕시코 대통령 동상, 이틀만에 파괴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에 세워진 멕시코 현직 대통령의 동상이 이틀 만에 누군가에 의해 파괴된 뒤 땅바닥에 처박혔다.

멕시코주 아틀라코몰코에 설치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동상이 새해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파괴됐다고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소셜미디어엔 받침대 위에 서 있던 동상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머리는 떨어져 어디론가 사라진 채였다.

멕시코주 검찰은 “동상이 파괴됐다. 반달리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상이 있던 아틀라코몰코는 현 대통령 직전에 재임했던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야당 제도혁명당(PRI)이 주로 장악해온 지역이었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된 2018년 선거 당시 이곳에서도 처음으로 여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 소속 로베르토 테예스 전 시장이 당선된 바 있다.

이번 동상은 테예스 전 시장이 2021년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PRI 소속 새 시장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직전인 지난달 29일 설치한 것이다. 180cm 높이로, 설치 비용은 총 5만 페소(약 291만원)가 들었

다고 엘우니베르살은 설명했다.

임기 6년의 절반을 넘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범죄 증가, 야당의 공세 속에서도 지난 연말 기준 65%가량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